



광주폴리에 대하여...

이순미 건축사_폴리는 가꾸는 사람들 대표

광주 보훈회관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



시론 02

광주폴리에 대하여..._이순미

설계경기 03

광주 보훈회관 건립공사 설계경기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3차)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설계경기

특별기획 04-05

광주시민의 염원, '광주 새야구장' 추진과정과 결과

건축과 도시계획 06

세계의 신도시_11부 킹시티/ 파운드베리_도영준

사람 & issue 07

원래의 목적과 개념에 충실한 건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_송명욱

지역건축문화 08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 3부_김지민

螢窓雪案 09

동신대학교건축공학부_남기봉

광주시민의 염원, '광주 새야구장' 추진과정과 결과



인터뷰_ 사람&issue

전북 군산 명 건축사사무소 송명욱 건축사



인터뷰_ 螢窓雪案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남기봉 교수

광주폴리에 대하여...



이순미 건축사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 대표
건축사무소 미가온 대표

광주시는 광주폴리가 광주 도시 전체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2011년에는 광주 옛 읍성 터에 10개, 푸른길에 1개의 폴리 작품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6~8개의 폴리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시는 유기체다.

도시를 다룰 때는 매우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광주시가 희망한 바와 같이 폴리가 시민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완공된 폴리에 문화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폴리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주변 환경의 정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현대는 도시 디자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 도시 중에는 성공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주도면밀하게 정책을 검토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집약적인 실천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광주시에서도 디자인으로 도시 재생을 꿈꾸며 후세에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광주시를 남기고자 하는 거대한 포부를 세우고 작년에 개최된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하여 광주폴리라는 프로젝트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재생 수단과 접목하여 도심 내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심 거점 구축' 과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를 활용하여 광주만의 명소를 만들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의 창조' 라고 한다.

광주시는 광주폴리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디자인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담은 폴리를 설치함으로써 도시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활용하는 시민들의 관심을 더욱 폭넓게 유발함으로써 광주폴리가 광주시라는 전체 도시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2011년에는 광주 옛 읍성 터에 10개, 푸른길에 1개의 폴리 작품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6~8개의 폴리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

건축 전문가로서 폴리 프로젝트는...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폴리 프로젝트는 무척이나 가슴이 설레는 사업이다. 특히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문화적 아이콘을 건축적인 요소에서 찾았다는 것에 큰 성원을 보내는 바이다. 더구나 광주폴리는 건축계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거장(도미니코 페로, 피터 아이젠만, 플로리안 베이겔 등)의 참여로 작품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에 대한 기대치도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건축과 문화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여 광주폴리의 조성 과정에 힘을 보태고자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 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가꾸다' 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보살피고 꾸러가다' 이다.

이런 의미를 실현하면서 광주폴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고자, 전문가이기 이전에 광주시민의 자세로,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 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광주폴리 조성 과정의 문제점과 완공 후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광주폴리의 문화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지관리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염려하고자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주시는 디자인비엔날레의 개막일에 맞추어 광주폴리를 그저 외관상으로 완공하기에도 벅차했다.

완공 후 문화콘텐츠 프로그램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인력, 예산 등 모든 것이 부재하였던 것이다.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보니, 갈등과 민원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으며, 정작 일을 전담하는 광주시 공무원들은 시민과의 갈등에 더 많은 스트레

스를 받았다.

광주시는 광주폴리의 목표를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심재생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하여 광주시가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라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이후 광주폴리는 과연 어떠한가에 대하여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지난 6월 26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광주폴리-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의 주요 의제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태도에 대한 불만들이었다. 시민과 주변 환경의 소통 부재가 가장 우선적인 이유로 제기되었으며 스타 건축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다는 지적도 있었다.

광주시는 시민,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광주폴리가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여전히 유효하다. 옛말에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 라는 말이 있다. '동네 이웃 사람들끼리 즐겁게 지내면 먼 곳의 다른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다' 라는 뜻이다.

광주시가 광주 시민이 진정 살기 좋은 동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인식된다면 자연히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는 곧 광주시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광주시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시는 유기체다. 도시를 다룰 때는 매우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광주시가 희망한 바와 같이 폴리가 시민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완공된 폴리에 문화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폴리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주변 환경의 정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만들어지는 폴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시민 및 주변 환경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그저 행정적인 예산 지출 행위로 광주폴리가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 토론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제와 엠블럼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대한민국 건축사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바랍니다.

時+文=建築

건축사, 삶을 짓다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제



대한민국건축사대회
KIRA National Convention, 2012 Festival of Korean Architects

엠블럼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찬금 모금운동

건축사회원의 이름으로 성공개최를
위한 협찬금을 보내주세요!

회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빛낼 수 있습니다!

-협찬금 납부방법

계좌번호: 신한 131-015-470552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협찬금을 지원하신 모든 회원님들은 홍보책자의 기부자 명단에 수록됩니다.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KIRA National Convention, 2012 Festival of Korean Architects

주최_ 대한건축사협회(KIRA)

주관_ [광]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후원_ 국토해양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설단체연합회,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10. 25 Tur ~ 26 Fri 본대회 10. 26 Fri

장소_ 김대중컨벤션센터, 홀리데이인 호텔

대상_ 전국 16개 시, 도 건축사회 회원 8,000여명

광주 보훈회관 건립공사 설계 경기는, 광주 보훈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경제성(관리측면과 기능의 합리성)등을 갖춘 예술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건축설계안을 선정하는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당선작으로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김갑동 건축사, 우수작으로는 (주)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조두상 건축사가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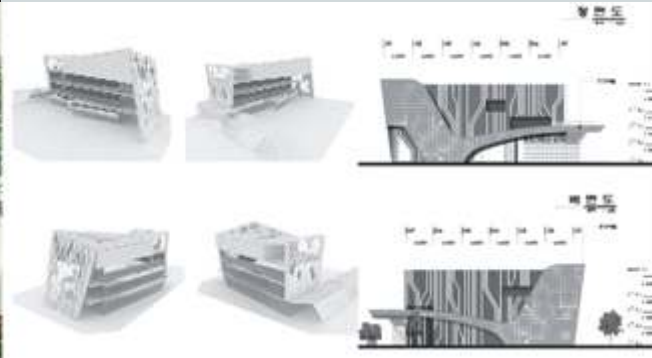
- 당선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_ 김갑동 건축사
- 우 수 작 (주)플러스 건축사사무소_ 조두상 건축사

광주 보훈회관 건립공사 설계경기



당 선 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_ 류가람 김갑동 건축사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56
(컨벤션센터 제1부설 주차장)
지역지구 : 도시관리 계획변경 예정
대지면적 : 22,131.80㎡ 중 약 3,200㎡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확정)
건축면적 : 774.36㎡
연 면 적 : 전체 2,346.21㎡ / 지하 208.80㎡ / 지상 2,137.41㎡
건 폐 율 : 24.20%
용 적 륜 : 66.79%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
최고높이 : 17.50m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3차)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설계경기의 목적은 양림동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면서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 및 조화, 경제성 등을 갖춘 예술성과 작품성이 뛰어난 건축설계안을 선정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선작으로는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 우수작으로는 (주)토방 건축사사무소 한진수 건축사가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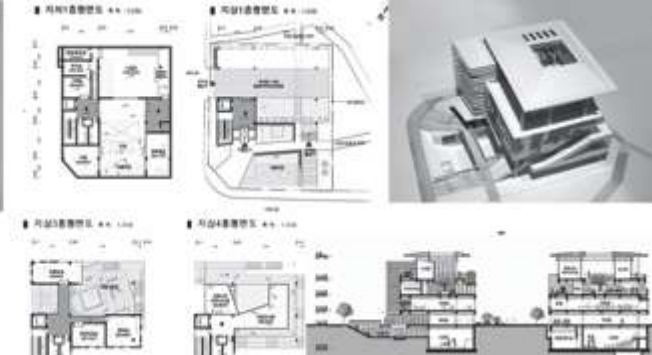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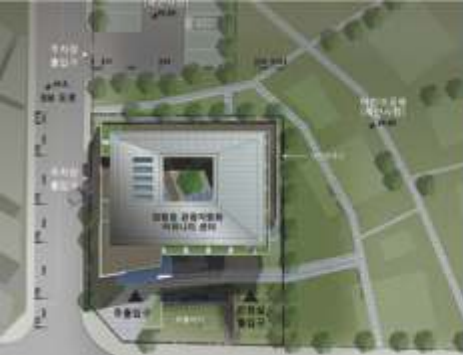
- 당선작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_ 조성호 건축사
- 우 수 작 (주)토방 건축사사무소_ 한진수 건축사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3차)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설계경기



당 선 작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_ 조성호 건축사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01-46번지 일원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지면적 : 734㎡
건축면적 : 405.7㎡
연 면 적 : 전체 1,207.06㎡ / 지하 422.8㎡ / 지상 784.26㎡
건 폐 율 : 55.27% (법정60%)
용 적 륜 : 106.85% (법정200%)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
최고높이 : 16.50m



광주시민의 염원, ‘광주 새야구장’ 추진과정과 결과

- ▶ 지난해 11월 경,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종합경기장에서 기공식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 ▶ 광주시, 자체적으로 턴키방식 발주하여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남양건설, 남광건설, 한양건설, 모아종합건설) 선정, 사업비 1천억원, 지상 5층, 지하 2층, 2만 5천여석 규모로 2013년 12월 완공예정



오는 2013년 12월이면 광주시민들의 염원인 새야구장이 현재 무등경기장 야구장(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316) 옆 옛 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서며, 2014년 프로 야구 시즌부터 관람이 가능하게 된다.

길게는 12년, 짧게는 4년 전부터 광주 야구장 신축에 대한 문제가 선거철 이 지역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에 2, 3 순위가 되다시피 하면서 시행여부에 광주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었다.

야구장 형태에서부터 부지선정에 대한 문제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광주 야구장 건립공사’가 확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 편집자 주

2001년 4월

1964년에 건립되어 40여년 가까이 사용된 광주 무등경기장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안전성과 시설사용 문제 등으로 새 야구장 건립이 화두가 되었다.

당시 고재유 광주시장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방문하여 박용오 총재에게 “기존의 광주야구장은 전국에서 가장 시설이 낡았다”며 “2003년부터 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모아 3만석 규모의 현대식 구장을 신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해태타이거즈 인수 예정 기업인 K제철과 P제철 등에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고, 또한 시의회의 반대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결국 같은 해 8월, 현대/기아자동차는 해태타이거즈를 인수하면서 광주시민들에게 야구장 신축을 공언했다.



2006년 초

미국에서 열린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자 국내 프로야구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쏠렸고, 그 중심에 광주 야구장이 있었다. 프로야구 25년사 중 한국시리즈를 9번이나 우승(2006년 기준)한 야구명가이자 선동열, 이종범, 서재응, 최희섭, 김병현 선수 등과 같은 야구인을 배출한 지역에서 부적합한 훈련장과 휴식공간, 편안히 앉을 수도 없는 관중석 등 최악의 시설을 갖춘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주시민들은 물론 야구를 좋아하는 많은 국민들이 연일 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야구장 신축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08년 7월

민선 4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하반기 중점 시책으로 국제 규모의 야구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 시장은 3만석 규모의 새 야구장을 2009년에 공사를 시작해 2012년 완공할 목표로 1,000억원 건설 비용 중 270억원은 국비로 끌어오고, 나머지 730억원은 시비로 충당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에 1억 7,000만원을 들여 ‘관련 용역’에 들어가 야구장 부지, 야구장 규격, 신축 후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확정지를 방침이었으며 야구장 부지는 서구 풍암동, 광산구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등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었다.

2009년 6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에 이어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한국이 결승에 오르자 또다시 광주야구장 신축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박광태 광주시장은 민선 4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구장 신축을 공언하였으나 재정형편상 7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민자유치로 전환했고 재정사업이 전환되며 야구장 신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중단되었다. 광주시민들과 야구팬들을 어려운 나라 경제 속에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009년 10월 ~ 2010년 3월

광주시는 야구장 건립을 위해 대구시와 함께 (주)포스코건설과 돔야구장 건립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건립계획을 대내외로 발표했다. 체결내용은 4,000억원의 민자금을 투입해 2만 5,000~3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며, 수익구조와 부대시설 규모,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내용과 돔구장 주변에 상업공간 등 복합 테마타운을 건립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주)포스코건설과 돔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동 체결했다.

그러나 2010년 2월 (주)포스코건설은 광주시에 “양해각서에 따라 돔경기장 개발사업을 위해 분야별 사업 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수익 사업을 통한 돔구장 건설 재원확보는 미흡하고 광주시의 장기적인 개발계획 및 발전방향과도 맞지 않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문을 보내 돔구장 건설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비난을 받았고, 이에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야구경기장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

2010년 5월~6월

광주야구경기장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제일 먼저 건립형태와 규모에 대한 자문위원회의를 거친 후 선진 야구장 답사를 추진했다. 일본과 서울, 인천 야구장을 답사하였는데 그중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마쓰다 줌줌 스타디움 히로시마 야구장’이 광주 새야구장의 표준적 모델로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



- ▶ 부지면적 : 50,472.42㎡
- ▶ 연 면 적 : 39,524.01㎡
- ▶ 사 업 비 : 약 90억원 (한화 1,215억원)
- ▶ 공사기간 : 2007.11 ~ 2009. 4

- ▶ 좌 석 수 : 30,350석
- ▶ 수용인원 : 33,000명
- ▶ 건 축 주 : 히로시마 시
- ▶ 관리운영 : 히로시마 도요카프 구단

2010년 7월~8월

민선 5기 강운태 광주시장(이하 강시장)이 취임하자 야구장 건립 추진 속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광주야구경기장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2010년 7월과 8월에 시민공청회, TV토론회를 열고 건립형태와 위치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공청회 때는 조용준 위원장의 시민추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가 있었고, 각 패널별로 야구장 건립방안 발표 등을 거쳤으며 시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했다. 그 결과 대다수 시민들은 돔 형식보단 개방형 야구장을 선호하였고, 건립 위치에 대해서도 현재 무등경기장 야구장 위치를 선호했다.



2010년 10월~12월

2010년 10월, 강 시장은 경남 진주에서 개막한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개방형야구장 건립 원천에 전격 합의했고, 총 사업비 900억~1,000억 원이 소요되는 광주야구장 건립 재원에 대해서 1/3은 국비, 1/3은 한국야구위원회(KBO) 및 기아구단, 1/3은 시비로 각각 부담키로 했다. 유인촌 장관은 그 자리에서 “국비지원은 스포츠포토 재원의 5%를 지방체육시설의 개·보수로 쓰도록 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법의 정신을 살려 광주야구장 건립에 우선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2월 7일, 광주야구경기장 건립 시민추진위원회가 강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를 통해 ‘복구 임동 무등경기장 종합운동장’ 을 야구장 부지로 최적의 장소라고 보고했다.

이날 조용준 위원장은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와 함께 야구장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현 무등경기장 부지가 다른 장소에 야구장을 신설하는 것보다 입지성, 접근성, 경제성, 환경성 등 측면에서 훨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강 시장은 같은 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광주야구장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발표하며 ‘아름답고 편리한 야구장’, ‘친환경적인 녹색 야구장’, ‘복합 체육문화구장’, ‘시민구장’의 네 가지의 콘셉트를 정하여 조성에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아자동차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지급받고 야구장 운영권과 명칭사용권 등의 권리를 25년의 범위에서 제공하는 위·수탁 협약식도 가졌다.

2011년 3월

2011년 3월, 광주시는 ‘야구장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돼 건립에 필요한 방향설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용역은 광주야구장 건립의 타당성과 그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경제성 분석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개발여건 분석,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토지이용 계획, 교통·동선계획, 주차장시설계획, 시설배치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담겼으며 입찰안내서(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결정됨)까지 포함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야구장 규모는 3만석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새로운 경기장과 기존 경기장과의 배치 관계, 관중 증가율,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1차적으로 2만 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시공하고, 향후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기존경기장 활용방안 마련하여 3만석으로 증축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야구장의 부대편익시설 및 수익시설로는 편의점, 음식점 등과 다양한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탁구장 등), 문화공연장, 스포츠바, 스카이박스, 스포츠 카페 등이 제시됐다. 주경기장 중에서 철거되지 않고 남겨지는 기존 성화대 하부를 활용, 역사관과 야구박물관을 설치해 무등경기장의 역사성 보존과 함께 야구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약 389대)보다 많은 1,700여 대를 설치하되, 경기장 내부의 지상과 지하에 1,314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경기장 주변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장 내부로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무등경기장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한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해 주차진입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2호선 건립시 야구장을 경유하거나 가까운 곳에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또한 자전거주차장의 충분한 확보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제시됐다.

야구장의 방향은 야구규칙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회 심의결과를 따라 기존야구장과 반대로 흠에서 2루로 지나는 선이 동북동을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무등경기장 앞 도로의 이용과 공간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임동 119소방안전센터를 새로운 야구장과 일체로 건립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야구장 건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를 이용하고, 빗물 이용설비를 설치해 조정 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야구장 건립과 운영에 따른 경제성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 7,768억원, 부가가치효과 3,597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2,161명으로 분석됐다.

2011년 6월~10월

2011년 6월, 광주시가 턴키공사로 자체 발주한 무등경기장 야구장 건립공사의 실적 증명서 제출과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 마감 결과 현대건설과 성지건설 등 2개 컨소시엄이 서류를 접수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40%), 전남업체인 남양건설(27%), 광주업체인 남광건설(15%), 한양건설(13%), 모아종합건설(5%) 등으로 구성됐으며, 성지건설 컨소시엄은 성지건설(38%), (주)태양건설(37%), 광주업체인 해림건설(25%)로 구성됐다.

10월 경, 광주시는 설계 적격심의를 하였고, 그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90.22점을 얻어 77.24점을 획득한 성지건설 컨소시엄을 누르고 선정됐다.

2011년 11월



2011년 11월 24일, 광주시는 무등경기장 종합경기장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는 강 시장과 지역 기관단체장, 기아자동차, KBO 관계자, 일반시민, 야구팬, 건설사 관계자, 광주지역 초·중·고 대학 야구부 선수들과 타이거즈 출신 역대 레전드들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종합경기장 발파 이벤트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야구와 관련한 다양한 사연을 공모하고, 그 가운데 5명을 발파 이벤트 참여자로 선정했으

며, 참여자들의 이름을 기념돌에 새겨 새 야구장 기념돌 설치 공간에 영구 보존케 했다. 드디어 이날, 기공식 발파와 축포가 터지며 광주시민들과 대한민국 야구팬들의 염원인 광주 새야구장의 건립공사가 시작됐다.

광주야구경기장 건립 시민추진위원장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Q : 2010년 3월부터 2년간 광주야구경기장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A : 광주의 숙원사업인 야구장 건립에 참여 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을 느낀다. 호남 사람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관점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더구나 금번 광주 야구장 건립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주체적으로 장소, 형태, 규모 등은 물론 세부 디자인 결정에도 참여 했다는 점에서 지자체 시대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한다. 이 기회에 시민추진위원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준 광주시에 감사함을 말하고 싶다.

Q : 광주야구장 최종 건립안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다면?

A : 인간이 만든 것은 완벽할 수 없다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 난다. 예산이나 입지 조건 등의 제약으로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근래 국내외에 건축된 야구장 중에서는 자신있게 자랑 할만 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커뮤니티 존중, 환경 존중, 사회약자 존중 등은 자랑 할만 하다. 아쉬움이 있다면 교통문제인데, 이는 앞으로 도시공간구조나 교통문화의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 광주야구장 건립과 관련해 이 지역 건축계를 대표하는 한 분으로서 광주시나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 근래 도시 투어리즘 시대가 되면서 건축은 도시에 사람을 모으는 도시경쟁력이 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건축물을 도시의 공공재로서, 문화재로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특히 광주 야구장은 시민 행정, 전문가의 깊은 애정 속에서 후손에게 물려줄 광주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광주 새야구장! 어떤 모습으로 건립되나!



세계의 신도시_ 11부

City of King City

킹시티(City of King City)는 미국 북서부 서쪽으로 태평양에 접한 오리건주 제일 도시인 포틀랜드시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km 지점에 위치한 신도시(planned adult community)로 행정구역 면적 약 1.1km²에 인구는 약 2,400명(2006년)이며,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도 영 준 교수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urban-50@hanmail.net

» 은퇴자를 위한 도시 / 킹시티, 영국의 실험도시 / 파운드베리

- 1부 : 개요 ·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린피스 _ 2011년 9월호
- 2부 :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수도 내피도, 캐나다 최초 기업도시 돈밀스 _ 2011년 10월호
- 3부 : 간척지의 중심도시 및 주도·렐리슈타트, 세계안보정책에 의한 신도시 로스엘레모스 _ 2011년 11월호
- 4부 : 대규모 기업도시 리포카라와치, 민간기업에 의한 단독주택단지 미션베이호 _ 2011년 12월호
- 5부 : 첨단그린시티 바우반, 국토개발(담)을 위한 배후도시 볼더시티 _ 2012년 1월호
- 6부 :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사이버자야, 부동산 개발의 좋은 선례지 섬머린 _ 2012년 2월호
- 7부 : 테마파크 배후 주거단지 셀러브레이션/골프장 중심의 데시벨 제로(0) 도시 시사이드 _ 2012년 3월호
- 8부 : 건축적 실험도시 알코산티, 학원(대학)도시 애버마리아 _ 2012년 4월호
- 9부 : 민간기업 주도의 카포레이, PUD 개념을 적용한 캘러라이나포리스트 _ 2012년 5월호
- 10부 : 매립지를 활용한 신도시 코럴스프링스/전원도시이론을 적용한 기업도시 키티매트 _ 2012년 6월호

킹시티(City of King City)

미국 북서부 서쪽으로 태평양에 접한 오리건주(북서쪽 워싱턴카운티 남동쪽 끝 주) 제일 도시인 포틀랜드시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km 지점에 위치한 신도시(planned adult community)로 행정구역 면적 약 1.1km²에 인구는 약 2,400명(2006년)이며,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민간회사⁽¹⁾가 단독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하였다.
- ② 골프장 주변의 편안하고, 매력적인 은퇴자 중심의 주택단지(55가구)로 시작하였다.
- ③ 북동쪽의 골프장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격자형 가로망을 적용하였다.
- ④ 1966년(3월) 독립적인 행정구역(시)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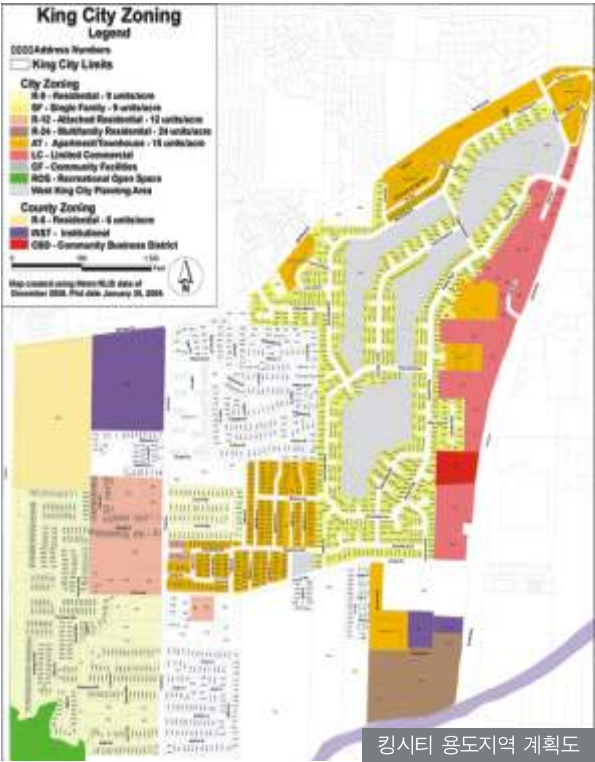
오늘날 이곳은 모든 연령계층의 주민을 위한 새로운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교, 다양한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좋은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포틀랜드 대도시권의 경계부⁽²⁾에 위치하고 있다.

- (1) 민간회사 : Tualatin Development Company
- (2) 경계부 : Urban Growth Boundary/도시성장경계선 · 도시성장경계선은 하나의 대도시권 내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경계선을 긋는 성장관리기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계선 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이 유도되거나 장려되는 반면 경계선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도시성장경계선은 농업용 토지나 오픈스페이스를 도시적 토지이용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는데, 그린벨트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대도시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파운드베리(Village of Poundbury)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 도셋(Dorset)주 주도인 도체스터(Dorchester) 시가지의 서쪽에 바로 접하고 있는 실험적인 신도시(experimental new town)로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영국 찰스왕세자로 알려진 웨일스 공⁽¹⁾의 주장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개발되었다.
- ② 도시는 전통적인 고밀도 패턴으로 개발되었으며, 지역제(zoning)는 적용하지 않았다.
- ③ 미국에서 시작된 뉴어버니즘(new urbanism/Seaside 참조)을 바탕으로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고품질의 도시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 ④ 1980년대 후반 레온 크리에⁽²⁾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3년(10월)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 ⑤ 레온 크리에의 계획은 개발기간 25년(목표연도 2018년)에 4단계 개발, 주택 약 2,500호에 인구 약 6천 명 수용을 목표로 하였다.



킹시티 용도지역 계획도



킹시티 시가지 전경

- (1) 웨일스 공 : Charles, Prince of Wales, 본 명은 Charles Philip Arthur George(1948년~)로 일반적으로 찰스왕세자라 부른다. 런던시에서 태어난 웨일스공은 전후 도시계획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졌다.
- (2) 크리에 : Léon Krier/1946년~, 남서쪽으로 프랑스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룩셈부르크공국의 수도인 룩셈부르크시에서 태어난 계획가로 1970~80년대 영향력 있는 신전통주의 건축가·도시계획가의 한사람이다. 신도시 파운드베리 도시계획으로 유명해졌으며, 그는 뉴어버니즘에 영향을 많이 받아 도시 전체보다는 도시 내의 부분적인 상세계획(detailed plan) 등을 많이 수행하였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Village of Poundbury

파운드베리 기본계획도

건설 중인 파운드베리 중심시가지 전경

원래의 목적과 개념에 충실한 건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_ 송명욱 건축사

지난 6월 27일, 본지 편집위원과 학생기자들이 전북건축사회에서 사람과 issue(회원탐방) 대상자로 추천한 회원을 인터뷰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를 방문했다. 그는 건축사자격을 서른이 되기도 전에 취득하고, 개인사무소를 개소해 20년 가까이 운영하며, 이미 많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송명욱 건축사, 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젊은 나이지만 어느 노(老)건축사들에게 풍기는 노련미와 절제미가 엿보이는 것이 그 때문일까...

다음은 송명욱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기자(이하 기):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욱 건축사(이하 송): 건축설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에 1982년도에 입학하였고, 정말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였습니다. 졸업 후, 남들과는 달리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건설회사(현대건설, 고려산업개발-현 두산건설) 설계실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고, 1993년 건축사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자격 취득 후, 1995년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명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송: 확립한 건축 철학보다는 제자신이 지키고자하는 의지인데 ‘기본에 충실한 건축을 하자!’입니다. 정보의 홍수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수용하기 보다는 건축 원래의 목적과 개념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어느 광고 카피처럼 1년이 되어서도 10년 된 듯한, 10년이 되어서도 1년 된 듯한 그런 건축물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기: 건축사로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다면?

송: 자랑스러울 때는 어떤 건축사든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약조건축에서도 건축주의 요구에 부합되는 설계를 해냈을 때인데,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낸듯한 희열을 느꼈게 됩니다. 부끄러울 때는 건축 설계비를 흥정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역시나 이것 또한 어느 건축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기: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송: 일본의 대표적 건축사인 안도 다다오와 대학졸업 후 건설회사에서 모시던 현대건설 한윤석 이사님을 꼽고 싶습니다. 안도다다오의 경우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긴장감 있고 간결한 건축을 계획할 수 있는 천재성이 본받을 만하고, 한윤석 이사님의 경우 첫 직장 상사로서 건축설계에 대해 눈뜨게 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설계하셨던 작품 중에 대표작을 꼽는다면?

송: 대표작이라 하려니 부끄럽지만 익산지원중학교와 익산고등학교 3학년동, 고창북고등학교 체육관 정도입니다. 고창북고등학교의 경우 기존 교사와 조화를 이루며 군민들의 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던 작품이라 애착이 갑니다.

기: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송: 사무소를 개소하고 약 3년 즈음 1997년, IMF사태로 다른 건

축사사무소 또한 마찬가지였겠지만 사무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수를 조정해야 할 정도였고 사무소를 폐업하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군산소방서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맡아 다시 한 번 일어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 바쁘신 와중에도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 요즘에는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항상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문창호 교수님과 장애인주거 개선 사업에 동참한 적이 있었는데 한정된 예산안에서 수행되었지만 입주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 선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송: 사회적으로 처음 건축사사무소를 개업 했을 때와 지금과는 건축사를 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합니다. 선배님들께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후배 건축사님들과 협력해서 다시 복원해 나가고 싶습니다.

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지방 소도시의 영세한 개업 건축사로서 한정된 자원과 시간 안에서도 자존심을 지켜내는 건축사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또한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먼 훗날을 생각하여 지금부터라도 건축사로서의 노후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송: 일이 즐거움으로 있을 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사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일이라도 즐거움을 갖고 임한다면 현재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에 대한 감사로 건축사의 길을 걸읍시다.

송명욱 건축사, 그가 가진 건축철학은 무엇보다 ‘기본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었다. 인터뷰 중에 밝힌 ‘1년이 되어서도 10년 된 듯한, 10년이 되어서도 1년 된 듯한 건축작품’이 머지않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 강동영, 박신남, 양우현 건축사기자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전북 군산 / 명 건축사사무소 송명욱 건축사



전북 고창북교교육관(2010년)



전북 익산지원중학교(2006년)



전북 익산고등학교 3학년동(2010년)

2012까지 이야기가 숨어있는 전라북도

전라북도건축사회



맛과 멋이 한 상 가득
2012전북방문의 해
VISIT JEONBUK 2012, KOREA

“5천만 마음의 고향” 전라북도!
건축사님들의 전라북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 일동-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_3부



김 지 민 교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
jm7192@paran.com

» 사라진 도서의 전통민가 행복마을과 살림집 신한옥

- 1부 : 공간문화, “ㄷ” 형 전통 가옥 - 2012년 5월호
2부 : 탐진강변의 정자, 향교·서원의 “전당후재” 형 - 2012년 6월
3부 : 사라진 도서의 전통민가 행복마을과 살림집 신한옥 - 2012년 7월
4부 : 하의도의 근대한옥, 목포의 석조건축 - 2012년 8월 예정
5부 : “—” 형 재실, 외로운 “정려각” - 2012년 9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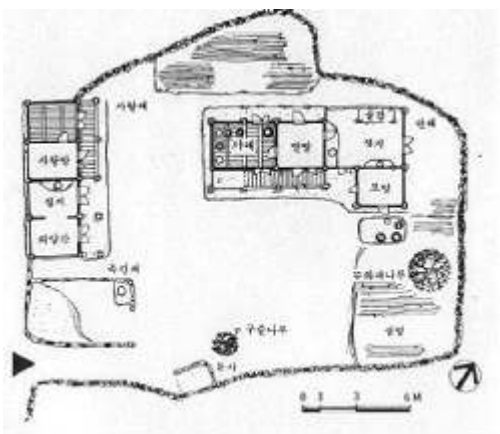
지역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전남지역 전통건축 분야 전문가인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의 원고를 5회 연재한다.

도서 민가에서 제일 주목되는, 키워드가 되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마래’ 다 마래에는 곡식을 담은 큰 독들이 놓여있다. 즉 마래는 곡식창고인 셈이다. 벼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알곡식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독에 담겨져 있다.

〈사라진 도서의 전통민가부분 중〉

현재 전남에는 106곳의 행복마을이 있고 한옥 수로는 1,000여채에 이른다. 이는 주로 기존건물(20C초 건립)을 관리하는 서울의 북촌 한옥, 전주의 한옥마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한옥이 새로운 살림집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행복마을과 살림집 부분 중〉



하의도 대리마을 민가(1823년)



암태도 민가(1861년)
좌:행랑채, 우:안채



마을 안길과 돌담



마래 내부



민가의 보편적인 창호
(죽살문과 봉창)

1. 사라진 도서의 전통민가

과거 비닷길은 지금의 고속도로와 같은 중요한 교통로 였고 아울러 많은 섬들과 함께한 문화 공간이었다. 풍부한 해산물과 소금, 의외로 넓은 섬속의 농경지 등은 내륙인에게 섬은 유혹의 땅이었다. 이로 인해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섬으로 이주하였고 특히 空島정책(왜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제적으로 섬에서 백성을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이 끝나는 임진란 이후인 17·18세기에 해남, 강진, 영암, 고흥 등 연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주하였다.

유이민들, 즉 이들은 사실상 현재의 도서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놓은 주역들이며, 현재 섬 지역에 남아있는 문화 요소들은 바로 이들 이주민들이 그들의 전주거지에서 이식시켜왔던 것을 섬의 환경에 맞게 발전시켜 온 것이다. 낮은 땅에 처음 들어온 이들 입도조(入島祖)들은 모든 것이 여의치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살던 육지의 집을 본떠 집을 지었을 것이다.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입도조, 또는 그 2세들이 지었던 민가를 어느 섬에 가든지 원형 그대로 쉽게 볼 수 있었다. 즉, 내륙과 달리 문화의 교대가 늦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19세기 초에 지어진 민가 조차 볼 수 없다.

필자가 자주 섬을 찾았던 1980년대의 경우는 마을 전체가 조선시대의 풍광인 마을도 있었다.(18·19세기 건축 민가, 담장, 마을 안길, 축사, 아궁이 등) 섬도 마땅히 현대적 편의성을 누려야 했겠지만 너무나 쉽게 전통을 버렸다. 문화재나 민속자료 조차도 지정을 하지 않았다.

도서 민가에서 제일 주목되는, 키워드가 되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마래’다. 마래에는 곡식을 담은 큰 독들이 놓여있다. 즉 마래는 곡식창고인 셈이다. 벼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알곡식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독에 담겨져 있다. 기타 여러 세간도 이곳에 함께 보관되는 고방이 되고 있다.

마래의 기능에서 또 하나 독특한 것은 보통 3대 정도의 조상 위패를 상시적으로 안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내륙지방 사대부 가옥의 사당 역할을 마래가 하고 있다. 그러나 사대부 가옥의 경우 다른 곳(보통 안채 대청)으로 장소를 옮겨 기제사를 올리는 것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마래에서 바로 제례를 지낸다. 즉 장소와 행위가 일원화 되어 있다.

또한 마래는 성주신을 모신 민속신앙 공간도 된다. 보통 종도리 아래(큰방 쪽)에 성주신을 모신다.

마래의 위치는 평면상 맨 위쪽(머리쪽)에 자리 한다. 즉 집에서 최고로 위계성이 높은 곳에 자리한 셈이다. 조상숭배와 곡식이 갖는 중요성이 건축적으로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타 지역의 ‘—’자형 민가에서 마루(대청)가 안방과 건너방 사이의 중앙에 오는 보편적 구조와 큰 차이가 난다.

마래는 3칸 민가에서도 꼭 설치됐다. 2번째 방대신에. 그렇다면 왜 도서민들은 마래를 그토록 중요시 했을까. 우선 고려하여 볼 것은 도서의 복잡 다단한 역사적 환경(침탈, 공도, 재입도 등)과 자연환경이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위안으로서 조상숭배와 민속 신앙을 지극히 받들었던 것이다. 곡식 또한 하나의 생명체로서 본채의 제일 주요한 공간에 보관한 것이다.

2. 행복마을과 살림집 신한옥

근대 및 산업화 과정에서 한옥은 농촌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소외의 원인은 ‘한옥=불편, 한옥=좁다, 한옥=비싸다’라는 보편적 인식과 함께 한옥을 구 시대적 유산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즉 정부, 학계, 건축가 등 그 누구도 한옥을 한국의 보편적 주거양식으로 계승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최근 한옥은 20세기초 근대 한옥이 그랬듯이 우리시대의 삶에 맞게 진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술적 진보로 인해 성능이 향상되고 창의적 설계로 인해 많은 한옥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옥만이 갖는 본질적 미학은 잊지 않고 있다. 필자도 여전히 그러한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설계에 임하고 있고, 영원히 생명력이 있는 우리건축으로 여기면서 한옥을 바라보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살림집 한옥을 보급하고 있다. 약 5년 전부터 행복마을을 지정하여 그 곳에 한옥을 지을 경우(건축면적 85.5㎡ 이상) 호당 4,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3,000만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다. 현재 전남에는 106곳의 행복마을이 있고 한옥 수로는 1,000여채에 이른다.

이는 주로 기존건물(20C초 건립)을 관리하는 서울의 북촌 한옥, 전주의 한옥마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

던 한옥이 새로운 살림집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전남의 살림집 신한옥은 건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다.

첫째, 한옥을 키워드로 한 행복마을 조성은 전통마을, 근대화 과정의 마을(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잊혀진 우리의 마을을 새롭게 인식시켜주고 있다. 즉 마을의 주거사를 새로 쓸 정도가 됐다.

둘째, 주거로서 한옥의 개념이 정착되고 있다. 세대와 계층의 구별 없이 살림집으로, 주말형 휴식 공간으로, 또는 건강주택, 수익형 민박주택 등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셋째, 지역의 산업화 측면에서도 한몫을 하고 있다. 목재, 흙 등 건축자재 산업이 활성화 되고, 특히 고용측면에서도 효과가 대단하다. 가령 목재 가공 및 조립만 보더라도 목수 인건비로 1채(100㎡ 기준)에 4,000만원이 지급된다.(20,000채 x 2,000원)

넷째, 환경적 측면에서도 한옥의 공헌은 대단하다. 현대건축물에 비해 유해성 건축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자재의 90% 정도가 나무와 흙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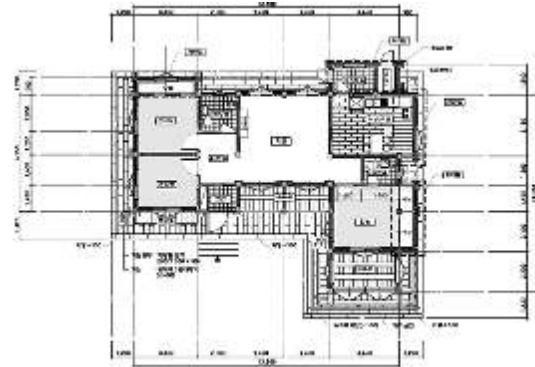
한편 전남의 신한옥이 지속가능한 주거로서 정착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문제의식도 필요하다.

첫째, 수요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저가 지향형(건축비, 설계비)을 버려야 한다. 가령 설계비의 경우 대부분 면적에 관계없이 호당 150~200만원 선으로 설계비가 책정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둘째, 신한옥 설계와 시공을 위한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즉 전통과 현대의 개념을 종합화 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다. 신한옥은 목구조의 이해뿐만 아니라 현대적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는 설비와 단열 등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행복마을의 신한옥은 목 부재 크기가 필요이상으로 크다. 즉 구조보다는 시각적으로 접근한다. 조선시대 사대부 가옥도 기둥의 경우 네모기둥은 180×180, 원형기둥은 Ø240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크기로 수백년 동안 품격을 유지했다. 현재 행복마을 신한옥은 보통 네모기둥은 240×240이고, 원기둥은 Ø300, 330정도다. 대들보도 360(390)×420(450)정도로 살림집 보가 아닌 사찰건물 대들보 크기다.

넷째, 행복마을의 지정 및 조성시 마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 한옥계획부터 마을 외부공간(담장, 기본 인프라, 식재, 공동공간 등)을 마을 특성(자연환경, 소득, 접근성 등)에 맞게 꾸며야 한다.



영광 자갈금 마을 신한옥(필자설계)



영광 자갈금 마을 신한옥



영암 구림마을 신한옥(필자설계)



영암 구림마을 신한옥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건축교육자 동신대학교 건축공학부 남기봉 교수와의 만남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남기봉 교수는 서양건축, 특히 독일 주거건축분야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있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학교법인금성학원 이사과 나주교육진흥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과 교육자로서의 소신과 열정에 대해서는 소속 대학뿐만 아니라 타대학 교수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다음은 지난 6월 25일 동신대학교 제1공학관 연구실에서 만난 인자하고 따뜻한이 풍기는 남기봉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지난 2012년 6월 10일자(31호)부터 ‘螢窓雪案’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광주·전남·전북지역 4~5년제 대학 건축 관계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업적, 활동, 철학 등을 독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지식의 향상과 학문적 연구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 螢窓雪案(螢窓雪案) : 반딧불이 비치는 창과 눈에 비치는 책상(冊床)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문에 힘쓰는 비유한 말

박정희 前 대통령과 인연 그리고 기회

남 교수는 평범하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 진학당시 광주 공업고등학교에 합격하고도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결국 학비 등을 지원해주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됐다. 당시 그 선택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될지 그 누구도 예상 못했다고 한다.

“1960년대 초반 독일엔지니어 한분이 나주에 사설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학교명이 ‘호만애암기술고등학교’였습니다. 현재 나주(한독)고등학교이지요. 시대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할 때라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학교였습니다. 박정희 前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정도였으니 얼마만큼 지원이 넉넉했겠습니까. 17살 때에는 독일어를 조금하게 돼 청와대에서 대통령 통역도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독일유학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독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지에 무척 놀라셨습니다. 그 때부터 저를 눈여겨보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군복무를 춘천 제일고 교사로 대체 복무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고, 저는 그 기간에 조금씩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당시 독일 유학(독일대학 입학)은 우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학력이 있어야만 가능했었습니다. 대학교 학력이 없었던 저는 군복무 기간 중 그나마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기에 독일에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1년 만에 수료하였고, 독일대학 입학자격을 취득하여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란 나라와의 인연

독일에서의 이력을 보면 남 교수는 유명인사 못지 않은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독일에서 약 20년 가까이 생활을 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과 인연이 깊은데 한국인 학생회 회장과 대외협력기구 TUABZINTERNATIONAL 학생대변인, 도시 건축연



독일 베를린대학 재학시절(앞에서 우측 첫번째)

구소 연구원, 공학박사 취득 등 모두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이룬 경력들입니다. 독일 건축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며 재구, 재독 한국인 과학기술자들과도 많은 인연을 쌓게 되었고, 재구, 재독 한국인 과학기술자협회 부회장과 건설분과 위원장까지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건축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남 교수는 1988년 독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에 이른다.

1991년 독일 생활을 마무리하며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로서 새출발을 하였고, 현재까지 교육자로서의 소신대로 제자들에게 건축에 관한 지식과 함께 삶의 지혜를 전수하고 있다.

획일화된 공간에 대한 비판, 건축교육 정책의 문제점도...

“독일 생활을 마친 후, 이곳 대학(동신대학교) 강연 초기에는 독일 공동주택에 대해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획일화된 공동주거형태에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사람자체도 획일화되어 개성은 말살되고 맙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각각의 개성을 표출하고, 그 개성의 다양함 속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공동주택도 각각의 개성을 표출되도록 지어져야 개성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 건축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교육은 ‘기술인가, 디자인인가(건축공학, 건축학)’로 심각하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분화된 교육이 이 사회가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인지 의문이 듭니다. 학교에서 구분하여 교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축은 건축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술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 모여 하나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5년제가 국제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 독일도 5년제는 일부이고 4년제, 4+2년제, 3+2년제 등이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우리나라도 다양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수준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부활되고 또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축학자’라기 보단 ‘건축교육자’

건축학자로서 그 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확립한 철학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건축학자라기보단 건축교육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축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고, 자기쇄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신입교수들 대부분이 30살 남짓에 임용되는데 교수 정년은 65세까지여서 근 30년 가까이를 교육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 긴 시간동안 학생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교육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쇄신을 강조한 이유는 기술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 현재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지식들도 1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로서 끊임없는 쇄신만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에게 배울 제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

유독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남다른 남 교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자 했다.

“첫 번째는 나의 제자들이 열정과 노력을 동시에 갖고 주도적인 학습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시키는 일만 해서는 절대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갖고 일을 끝맺은 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든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함을 제 자신 또한 잘 알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꿈꾸는 데에만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꿈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에 젊음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머물렀던 자리를 돌아봐야할 시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남 교수는 어느 한 제자가 선물했다는 책에 나온 문구를 되새겼다.

“헤민 스님이 쓰신 책에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는 멈춰 서서 머물렀던 자리를 돌아봐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43살에 이곳에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올인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 올인했던 교육을 받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간 학생들이 동의를 해야 진정한 교육자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계속 있었다면 건축사로 일하며 내 자신의 안위가 편안했겠지만, 여기에 와 건축교육자로서 더 소중한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정년까지 남은 열정을 쏟아 붓고 싶습니다.

더 큰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취재 : 서재형, 박종호 건축사기자,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남기봉 교수

〈학력〉
1966년 : 나주(한독)고등학교 졸업(호만애암기술고등학교)
1976년~1979년 :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Dipl.-Ing.) 등
1988년 :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 공학박사(Dr.-Ing.)
〈경력〉
1966년~1968년 : 독일 시멘스 부산화력발전소 기술통역
1981년~1984년 : Berlin 건축사무소 AGS 근무
1981년~1982년 :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 한국인학생회 회장
1984년~1986년 :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 건축대학 도시건축 연구소 연구원
1988년 : 독일 건축사 등록
1988년~1990년 : 재구, 재독 한국인 과학기술자협회 부회장
1988년~1989년 : 베를린 한인회 부회장
1991년~현재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2005년~현재 : 한국학술진흥재단 선진연구과제평가위원
2006년~현재 : 전라남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2007년~현재 : 나주교육진흥재단이사
2007년~현재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사업협의회 위원장
2009년~현재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기술혁신사업 평가위원

〈표창〉
2010년 : 대한건축학회 교육상, 환경부장관 표창 등 다수
〈논문〉
2011년 4월 : 전통주거건축 입면구성 요소의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권 04호 page 115~122
2007년 6월 : 가로변 모퉁이 대지 건축물의 입면구성방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총장로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9권 2호 등 다수.



독일에서 직접 설계한 주택

광고 및
공동신청

건축문화

사랑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 고 : 500,000원
- 하단 1/2 광고 : 300,000원
- 하단 1/3 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 / 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 건축문화사랑 신문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가행문>

광주 도시재생투어(부산) 건축기행문

- 문화골목을 다녀와서...

김대은 사원
건축사사무소 선

크지도 화려하지도 드러나 있지도 않게 주택들을 배경삼아 자리 잡고 있는 부산남구 대연동의 문화골목은 현대 주거재생, 도심재생의 흐름 속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물론 이미 많은 재생 방법들이 연구되고, 적용되고, 소개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단순히 대안 중에 하나 이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골목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몇 채의 집과 연계된 집합체라는 점과, 또 그것이 단지계획에 의해서 나온 골목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주거환경 속에서 한 건축사의 의도에 의해 ‘추억과 기억’이라는 코드로 시공을 초월하여 엮여졌다는 점, ‘비슷한 수준의 표현방식’을 적용하고 ‘골목’이라는 건축 장치로 연결해서 한 덩어리로 묶었다는 점에서 문화골목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문화골목을 둘러보면서 딱히 ‘부산의 색’ 그러니까 지방색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곳도 아니고 지역적인 대표성도 없다. 그냥 보편적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추억의 느낌이고, 우리의 색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주거 흔적 이었다. 그래서 더욱 거부감 없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래서 더욱 특별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사는 광주에선 어떠해야 할까? 이 사업은 공공적이지도, 역사적이지도, 상징적이지도 않다. 한명의 건축사가 가지는 건축적 의도 그리고 약간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 자신의 집을 가꾸듯이 광주를 아끼고 가꾸는 마음으로 작은 주택부터 하나하나 애정을 담아 설계를 한다면, 또 잊혀져가는 낡은 건축물을 폐기물로만 보지 않고 좀 더 고민하고 분석한다면 광주의 역사적, 건축적 가치는 깊이를 더해가지 않을까? 이 글을 읽는 모든 광주의 건축인들이 모두 이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관, 2012 광주 도시재생투어 개최

- 본지 공동주관, 참가자 100여명 부산지역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지난 6월 23일,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본지 건축문화사랑이 공동 주관한 2012 광주 도시재생투어가 시민, 건축사, 교수, 공무원, 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 도시재생의 과제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일반 시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증진, 광주도시재생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부산 광복동 가로재생시범지구, 2008년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 받은 ‘문화골목’,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인 두레마을-영화의 전당, 2011년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인 아이산전망대, 2011년 부산다운 건축상 금상을 받은 오록도 가원 등을 답사했다.

2012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 (사)한국농촌건축학회가 주관, 지난 6월 29일 호남대학교에서 발대식 가져



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 최명규, 호남대 교수)는 6월 29일 호남대학교 상하관에서 ‘2012 농어촌 집 고쳐주기 대학생 봉사단’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봉사활동을 펼치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 300여명과 지도교수 및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원을 비롯해 다솜복지재단 정영일 이사장,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차관 등이 참석했다.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의사항교육, 전문가 강연, 성실봉사 다짐 결의대회 등으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서는 격려사와 함께 후원금 전달식도 열렸다.

이 봉사활동은 (사)한국농촌건축학회가 주관하고 (재)다솜복지재단이 주최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펼쳐지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후원한다.

올해 봉사활동은 농어촌 취약계층 375가구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대학생,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후원회원 등 2,7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규모는 37가구(2007), 38가구(2008), 113가구(2009), 170가구(2010), 309가구(2011)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다.

해외건설 5천억불 수주달성 및 2012 건설의 날 기념행사

- 前 광주건축사회 이창울 회장 산업포장 수상, 前 전남건축사회 심우석 회장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이창울 건축사



심우석 건축사

광주,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건축사 2인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2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각각 정부포상과 국토해양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지난 7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해외건설 5천억불 수주달성 및 2012 건설의 날 기념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건설근로자, 건설단체, 정부 주요인사, 국책은행장, 투자기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기

념영상물 상영, 유공자포상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유공자포상에서 해외건설 등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 공로가 높은 건설업계 관계자 156인이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하였는데, 이 가운데 광주건축사회 이창울 前 회장(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이 산업과 국가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6인에게만 수여되는 산업포장을 수상(6인 수상자 중 유일한 건축사)했다.

특히, 이창울 前 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와 부회장 재임 중에 법제위원회, 친환경건축위원회의 담당임원으로 국가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에너지 친환경건축물의 설계기법 개발 및 인증기준 보급에 앞장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었다.

한편, 전남건축사회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를 역임한 심우석 건축사(우성 건축사사무소)는 국토해양부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디자인센터, 신규 사업 발굴 위한 지역디자인센터 협의회 개최

- 초광역권 연계한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 협의 등 향후 지속적 연계 활동키로



오른쪽 세번째부터 홍군선 부산디자인센터원장, 장상근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정용빈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원장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장상근·www.gdc.or.kr)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전남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정용빈), 부산디자인센터(원장 홍군선)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디자인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디자인센터 장상근 원장은 “지역디자인센터의 발전과 공공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회동을 통해 관련 법규 개정과 초광역권을 연계한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산업디자인 분야와 공공디자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디자인 신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향후 지속적 연계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2 대학생 디자인캠프 개최

- 지난 7월 2일부터 5일간 ‘도시형 타운하우스’라는 설계주제로 진행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지민 목포대 교수)가 지난 7월 2일, 광주대학교에서 광주·전남지역 소재 건축학(공학) 관련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 36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2 대학생 디자인캠프를 개최했다.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디자인캠프는 ‘도시형 타운하우스’라는 설계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광주·전남지역 유명 건축사 및 교수 14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참가학생들을(7개조 구성) 지도했다.

개회식이 열린 첫날, 초청강연으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오세규 교수의 ‘타운하우스 설계프로세스’와 희림 건축 오성원 상무의 ‘타운하우스 설계사례’ 강연이 열렸고, 3일 때에는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염대봉 교수와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가 참석하여 중간 평가를 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와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심재춘 교수가 참석하여 최종 평가회를 진행했다.

한편,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는 김지민 회장 취임 후 첫 대외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향후 진행하는 여러 사업 또한 박차를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9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요강

- 공모주제
 - 도시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기
- 참가대상 및 참가부문
 -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 1~3학년/고학년 4~6학년) 중학교 재학생
- 작품접수
 - 접수기간: 2012. 8. 20(월) ~ 8. 30(목) pm 6:00
- 작품응모
 - 응모는 1인당 1작품에 한하며, 별도의 도화지 배부는 없습니다.
 - 작품규격: 철판지 4절지(크기 38cm×53cm) 초등학교 저학년은 8절지도 가능
 - 참가비 없고 참가신청 양식은 홈페이지 http://gjkira.or.kr에 접속하여 다운받아 이름,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작품명, 작품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접수방법: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4층) 500-876(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
 - 우편제출의 경우 9월 15일(목)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번지)
- 수상작 발표 및 시상내역
 - 수상작 발표: 2012. 9. 10(월) http://gjkira.or.kr를 통하여 발표

- 시상식: 2012. 10. 27(토) 개별토지
- 전시: 2012. 10. 25(목) ~ 10.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 시상:
 - 초·중등부
 - 최고상(총 3점): 광주광역시교육감상 및 30만원 상당 상품
 - 금 상(총 4점):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상 및 20만원 상당 상품
 - 은 상(총 8점): 광주건축사회회장상 및 10만원 상당 상품
 - 동 상(총 15점): 대한건축학회광주·전남지회장상 및 5만원 상당 상품
 - 입선(약간명): 한국건축가협회광주시회장상
 - 유치부
 - 최우수상(2점): 10만원 상당 상품/1점
 - 우 수 상(5점): 5만원 상당 상품/1점
 - 입 선(약간명): 상장
- 주최/주관
 - 주최: 광주광역시
 - 주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홈페이지 http://gjkira.or.kr Tel. 062)521-0025 ~ 6 Fax. 062)528-0026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9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 개최요강

- 출품작품
 - 작품내용: 아름다운 도시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
- 출품자격
 - 응모자격: 건축과 사진에 관심있는 모든 자
- 작품접수
 - 접수기간: 2012. 8. 20(월) ~ 8. 30(목) pm 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작품규격: 12"×16" 사이즈 사진(규격 엄수)
 - 제출서류: 필름 원판 또는 2BM 이상 JPG 원본파일과 참가신청서 제출
 - 등록비: 없음(1인 2작품 이내)
 -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http://gjkir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접수방법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4층)
- 입상작 발표
 - 2012. 9. 7(금) http://gjkira.or.kr 게재

- 시상
 - 대 상(1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2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우수상(4점):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장려상(10점):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입선(다수): 상장 및 기념품
- 기타사항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작의 작품과 필름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사에 귀속됩니다.
 - 출품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타 공모전 입상작으로 밝혀질 경우 입상이 취소됩니다. (상장 및 상금은 주최측에 반환)
 - 입상작품은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기간 중 전시 (2012. 10. 25 ~ 10. 28/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최 및 주관
 - 주최: 광주광역시
 - 주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Tel. 062)521-0025 ~ 6 e-mail: gjkira@empal.com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 금남로가 잔디광장으로 조성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부터 금남로 4가까지 Y자형 518m 잔디 입힐 계획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후반기 광주희망 10대 사업의 하나로 금남로를 5·18 민주·녹색 광장으로 단장하여 5·18기념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를 치르거나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금남로 사거리 518m 구간을 잔디를 깐 녹색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며, 이 구간의

양복 6차로 가운데 4차로를 ‘차 없는거리’로 만들고, 인도와 맞닿은 양쪽 1개 차로만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나 업무용 차량만이 다닐 수 있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Y자 형태로 들어서는 금남로 잔디광장은 2개로 분리되는데 분수대 일대 광장은 모두 8,110㎡로 분수대를 따라 폭 3m~4m의 실개천을 만들어 지하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물이 하루 중일 흐르게 하고, 계단도 만들어 시민들이 발을 담근 채 물놀이와 얼굴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기로 했으며 이어 금남로 2가 방향으로 4가까지는 끊김 없이 반듯한 잔디광장이 조성되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해,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공원처럼 도심 속 녹색 공간으로서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장소로 꾸려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금남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 등의 변화가로 이어지는 중심 도로여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계획 실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년 연기되다

－2015년 7월 개관, 완공은 2014년 말 목표로 추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1년 연기됐다. 지난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오는 2014년까지 완공하고 2015년 7월에 개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광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의 공정 여건(공정률 48%)을 감안해 최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2014년 중반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

당을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말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완공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 뒤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 개막하는 2015년 7월에 개관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당초 2012년 개관될 예정이었으나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로 2014년으로 미뤄진 이후, 다시 늦춰지게 됐다.

2012 광주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에 배우 ‘이병헌, 임수정’ 등 위촉

－지난 7월 3일 광주 금남로 공원에서 위촉패 전달식 등 기념행사 가져



지난 7월 3일 광주 금남로 공원에서 2012 광주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다. 이날 위촉식은 광주비엔날레 참여 확대와 소통을 위해 건축사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의 ‘광주 폴리’ 작품이 설치된 금남공원에서 시민 공개행사로 진행되었으며 각계 인사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우 이병헌씨와 임수정씨에게 명예홍보대사 위촉패가 전달됐다.

이번 홍보대사에는 배우 이병헌, 임수정 외에도 디자이너이자 미술 콜렉터인 에바 차우도 선정됐다.

이들은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비엔날레를 각계각층에 소개하고 소통의 물꼬를 트는 명예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2012광주비엔날레는 ‘라운드테이블’을 주제로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주시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광주 폴리프로젝트, 이대로 좋은가?

－지난 6월 26일 열린 시민포럼에서 반대보다는 발전적 비판이 이어져



광주 폴리에 대한 진단 및 발전을 위한 시민포럼이 지난 6월 26일 광주NGO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시민과 전문가 및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상윤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과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 촌놈, 개발독재, 시민 소외’ 등 다소 과격한 어휘로 비난의 칼날을 세웠다.

주제발표에서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폴리, 왜 하는 것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 등 성찰적 질문과 함께 ‘배경, 목적, 의미, 과제, 활용방안, 대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가며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효원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2011 광주 폴리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말하기 쉽지 않다”라고 밝히면서도 해외 사례와 2011 광주 폴리를 도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리한 후 “도시를 새롭게 조직해내는 과정은 누군가에 의해 계속해서 수행되어야 하며, 완성된 광주 폴리 프로젝트는 공과 또는 호불호를 떠나 그것을 자극하고 유발한 하나의 동인으로 유효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법제화 또는 제도화, 종합계획 수립, 유지관리 및 활용방안,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광주시의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도시공간의 공공 거점 확대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광주 폴리는 광주를 창조도시를 만드는 역할도 하지 못했고, 생태적 문화적 도시재생을 촉매하는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인화 광주광역시 의원은 “왜 시민들이 폴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지? 2011 광주 폴리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 및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패널로 참여한 김선재 문화지기단 단원은 ‘외국 작가가 너무 많고, 도시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고, 이순미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 모임의 대표는 ‘완성 폴리에 대한 문화적 활용방안 부족과 관리대책 미흡’을 지적했다.

한편 자유토론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줄지어 쏟아졌는데, 이규남 광주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반대가 아니라 발전적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반성과 보완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다짐하고, 금년 사업 완료 후에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준공식 열려

－예술작품과 어우러진 공원, 광주도심의 문화예술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



이민아, 조민석 등 국내외 차세대 작가 5인으로 구성되어 화제가 되었던 광주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약 1년여 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최종 완료되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6월 28일, 김영준 작가의 작품 ‘스텝’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다.

박흥근 총예술감독(주)포유 건축사사무소)의 사회로 참여작가 5인의 5가지 작품

(김영준-스텝/옛 KBS방송국 입구 도로 절개지, 이민아-기슭/호국무궁수훈자 전공비 옆 산책로, 조민석-빈집/배드민턴장, 박동준-흔적/공원관리사무소, 신혜원-흐르는 풍경/옛 수영장)을 투어하며 플롯 연주, 라틴 앙상블 공연 등 각 작품마다 이색적인 공연이 펼쳐졌고, 추진상황 설명, 작가설명 등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빈집’에서 열린 리셉션에서는 참여작가 5인과 시공업체 4곳에게 감사패가 전달되기도 했다.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프로젝트는 2011년 3월 TF팀 구성, 참여작가 선정, 워크숍, 여론조사를 거쳐 작품구상안을 확정하고 올해 2월부터 작품 설치에 들어갔었다.

광주시민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져갔던 사직공원이 예술작품과 어우러진 공원으로 탈바꿈됨에 따라 광주도심의 문화예술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광주폴리의 훼손 문제로 보존과 활용 방안이 이슈가 됨에 따라 광주 사직공원프로젝트 예술작품에 대한 우려감 또한 표하고 있어, 향후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 수립이 촉구되고 있다.



광주 · 후쿠오카 건축교류전 출품작 모집공고

1. 출품작품
작품내용 : 현상설계 당선 또는 준공건축물로 전시회에 출품되지 않은 작품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작품 CD (JPEG, PSD 파일)

2.출품자격
출품자격 : 광주광역시 건축사 회원

5. 신청서접수
접수기간 : 2012. 6. 29(금)까지
FAX, 062)528-0026
신청서 :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http://gjkra.or.kr

3.작품규격
JPEG, PSD 파일로 제출(규격 A1사이즈/
594×41mm)

4.작품접수
접수기간 : 2012. 6. 20(월) ~ 8. 30(목)
접수처 : (사)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4층)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12년 광주건축공모전

“행복한 창조도시” 사람이 공존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도모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Community가 강화된 공간 아이디어 디자인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 주제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문화의 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Community 시설 디자인

* 참가자격 : 전국의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자

* 신청서교부 및 등록
- 일시 : 2012년 9월 3일 (월) 오전 10시 ~ 9월 7일(금) 오후 6시
- 방법 : http://gjkra.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e-mail로 등록 및 접수

* 작품접수
- 일시 : 2012년 9월 27일(목) 오전 10:00 ~ 9월 28일 (금) 오후 6시
- 장소 : 우)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장 (광주역 근처)
-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2012년 9월 28일 우편소인까지 인정) A1 2매 (반드시 A1 2매로 제출)

* 심사
- 1차 심사 : 2012년 10월 4일 (목) 결과발표 개별 통보
- 2차 심사(공개심사) : 2012년 10월 18일 (목) 결과발표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 (장소 변경 시 추후 통보)
공개심사 참여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 신청 : 062-521-0025)입장신청 분에게 기념품 증정

* 시상
- 대상(1점) :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우수상(2점) :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 특선(5점)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佳作(10점) : 상장 및 기념품
- 입선(다수) : 상장 및 기념품

문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사단법인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전라북도 주관 건축·경관분야 연찬회 개최

－ ‘전북 방문의 해’ 맞아 타 시·도와 연합으로 행사를 개최



지난 6월 28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주관으로 ‘2012년 건축·경관분야 연찬회’가 개최됐다.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전라북도 건축사회 이성엽 회장을 비롯한 회원, 전남 공무원 36명 등 총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연찬회는 2012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타 시·도와 연합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시·도간 교류확대와 전북방문의 해 홍보, 아울러 건축정책,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등 최근 변화되고 있는 건축정책 및 건축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건축과 도시경관의 조화 등 건축문화의 새로운 지향점에 대하여 점검해보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번 연찬회는 초청강연 및 사례발표 위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토론시간이 다소 부족했으나,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보다 나은 건축행정과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취재 : 양우현 건축사기자 bhl493@chol.com

광주건축사회, 국제교류사업 박차를 가하다

－ 중국 광둥성토목건축학회, 베트남 박닌성건설협회·건축사협회와 교류 추진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과 안태경 국제위원장, 정명철 이사가 지난 7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과 베트남 박닌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광주건축사회의 국제교류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중국 광둥성토목건축학회와 베트남 박닌성건설협회·건축사협회와 교류 사업 내용을 협의했다.

협의된 주요 내용은 상호 방문과 의견 교환, 기술교류 및 간행물 등의 정보 자료 교환, 학술 발표와 전시회 등의 상호 참가 및 공동 개최 등이었다. 심상봉 회장은 “일본 JIA 후쿠오카회와 10여년을 넘게 교류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살려 중국과 베트남과도 상호우호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4개국 이 함께 교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8일, JIA 후쿠오카회 가와즈 회장 등 3인은 전남 여수를 방문하여 광주건축사회와 건축교류전을 비롯한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기간 방문단 구성, 국제교류사업 확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건축사회, 제3기 건축사아카데미 제5강좌 개최

－ ‘건축사의 세무회계’라는 주제로 천지회계법인 황용현 회계사 강연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6월 28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3기 건축사아카데미 제5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건축사의 세무회계’라는 주제로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번호사이자 천지회계법인 황용현 회계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작년 제2기 건축사아카데미 강좌에서도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연을 진행해 건축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황용현 회계사는 이번 강연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진행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제5강좌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는 제3기 건축사아카데미는 정동채 前 문화관광부장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건축 류춘수 건축사 등 유명인사들의 강연으로 다른 해보다 영향력 있는 아카데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강연에서는 건축사들의 참석률이 낮아, 앞으로 추진될 건축사아카데미에서는 기존과 다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많은 건축사 회원들에게 건축사로서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분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건축사아카데미가 원래의 취지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보인다.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전북건축사회 방문

－ 지난 6월 12일부터 4일간 방문, 양국 단체 간의 상호이해와 우의 다져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대표단(방한 인원 11명)이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3일간) 전북건축사회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도내 전통 건축물(경기전, 전통성당)과 근대 건축물(군산근대건축), 현대 건축물(전주대학교 스타센터)을 탐방했다. 특히 전주대학교를 방문하여 캠퍼스 투어와 건축학과를 방문하여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학생들을 만나보았다.

6월 13일에는 전주시 소재 웨딩 캐슬에서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대표단을 위한 환영식이 있었다. 이 날 환영식에는 전라북도 건축사회 회원을 비롯하여 전북건축가협회, 전북건축학회,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만찬이 베풀어졌다.

전북건축사회 이성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리우건과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의 전라북도건축사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양 협회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의 건축문화 이해와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우호 증진에 힘쓰자”고 말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상호 방문 교류와 작품 전시 외에 보다 발전적인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리우건파(陸根法)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이사장은 “우리 대표단을 환영해 주신 이성엽 회장을 비롯한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탐방하면서 한국 건축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도시건설과 관리는 우리가 참고삼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었다”며 “강소성을 비롯한 중국은 빠른 속도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건축형식도 급격히 변하고 있어 개발과 보존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방문 인사를 했다.

이어진 환영만찬 후, 2009년과 2011년 방중단단이 마련한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 양 협회 회원 간의 우의를 굳게 다지는 아름다운 우정의 시간을 보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발전을 위한 워크숍 열려

－ 이성엽 전북건축사회장과 전영대 前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강연



지난 6월 13일(수) 오후 4시 30분부터 전주 웨딩 캐슬 컨벤션에서 전라북도건축사회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건축사회 회원 및 건축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시간에 이성엽 회장으로부터 ‘2012년도 대한건축사협회 주요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전영철 건축사(前 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로부터 ‘건축법의 변천과 건축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건축법 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개편에 따른 건축인의 역할에 크게 공감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전주시건축사회 주관·건축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 개최

－ 건축유관기관(단체) 관계자 200여명 참석, 유대관계 돈독히 해



지난 6월 16일(토) 완주군 모악산 자락에 위치한 도립 미술관 앞 운동장에서 전주시건축사회(회장 김남중) 주관으로 전주시건축사회 회원과 전라북도내 건축유관기관(전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청, 김제시청, 완주군청) 건축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 건축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210여명이 참석하여 축구와 족구, 줄다리기, 계주경기 등의 종목

에서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주시청팀이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매년 개최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5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써 기관(단체)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참석자 상호간에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데 역점을 둬서 전라북도 건축인의 뜨거운 열정을 하나로 모으는 축제의 장이 됐다.

2012년 광주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도시철학이 깃든 건축 및 도시재생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주 제 :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 공모분야 :
 - 현지개발방식의 창조마을, 희망만들기 사업
 - 낙후된 구 도심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을 방안
 -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점목사업
 - 도심 골목길과 푸른길 등 특화거리 조성사업
 - 상가 형목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도시재생 사업
- 참가자격 :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및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가능
- 등 록 : 2012년 7월 11일 (수) ~ 8월 31일 (금)
- 신청서 교부 : <http://gjkira.kira.or.kr>과 <http://www.gwangju.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e-mail로 등록
- 작품접수 : 2012년 9월 3일 (월) 오전 10시 ~ 9월 4일 (화) 오후 6시
- 작품제출규격 : A1(1매)
- 작품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작품제출장소 :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심사방법 :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2차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함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 9월 6일 (목) ▶2차 심사 : 9월 13일 (목)
- 시상 : 대상(1점) :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우수상(2점) :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 특선(5점)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가작(10점) : 상장 및 기념품 / 입선(다수) : 상장 및 기념품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문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T. 062)521-0025~6 / F. 062)528-0026

2012년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모집공고

아름다운 문화 도시공간을 발굴하여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보존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확산 장려 등 아름다운 문화도시 가꾸기의 자생적 기반조성과 우리도시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2012년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대상 작품을 공개 모집합니다.

2012. 6. 8

광 주 광 역 시 장

- 접수기간 : 2012년 7월 2일(월) ~ 7월 31일(화) 18:00까지
- 응모분야 : 광주광역시 소재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기여한 공백·담장 허물기, 골목길 가꾸기, 대지내 조경, 벽면·옥상녹화, 공개공지 조성, 가로공원·쌔지공원 조성, 야간경관 등
- 참가자격 : 제한없음
- 제출내용 : A3규격내 위치, 작품설명서, 현장사진 등으로 임의 제작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접수시간까지 도착분 유효) 제출
- 제출장소 : 502-827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번지 / 골든빌 310호 나무심는 건축인 (우편접수가능)
- 시상분야 : 3점 이내
- 시상내용
 - 당선된 시설물 소유자 (또는 단체) : 광주광역시시장상 및 부상 수여 - 당선된 시설물 : 기념동패 부착
 - ※ 단, 당선작품의 제출자와 시설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선작품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상품 별도 지급
- 문 의 처 : 시 도시디자인과 T.062-613-4881 / 나무심는 건축인 T.062-373-3131
- 심사방법 : 시 도시경관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1차) 및 현장실사(2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전시일정 : 2012년 11월15일(목) ~11월 18일(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실
- 시 상 : 2012년 11월중
- 주 최 : 광주광역시
- 주 관 : 나무심는 건축인

김제시건축사회 장학금전달

－ 지역 인재양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김제사랑 장학재단에...



발전에 조금이나마 환원하는 건축사회가 되기를 약속하였고, 매년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제시 건축사회는 9명의 건축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News 광주 건축사회 동정

*변경

- 최경락 건축사 / 라일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봉선2로 49(봉선동) 4층
- 곽영경 건축사 / 간토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일곡택지로 53번길38-6
- 장경록 건축사 / 엘림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구성로 130 3층(구동)6

*부고

- 박동준 건축사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 6월 11일 (월) / 모친상

News 전북 건축사회 동정

*입회

- 배철용 건축사 / 청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어양동 629-2

*변경(소재지)

- 박광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비전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615
- 백종남 건축사 / 아도건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3
- 백현기 건축사 / 미림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401-10

*부고

- 김중왕 건축사 / 담 건축사사무소 / 6월 17일 (일) / 빙부상
- 노현희 건축사 / 아키엔 건축사사무소 / 6월 22일 (금) / 부친상

전라북도 김제시건축사회(회장 김형운)에서는 지난 6월 15일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김제시 시장실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건식 김제시장과 관계공무원, 김형운 회장을 비롯한 김제시건축사회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건식 시장은 어려운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기탁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김형운 회장은 더불어 살아가고 지역인재양성 및 지역

News 전남건축사회 동정

*입회

- 황승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희람 /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7

*폐업

- 이종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변경(소재지)

- 신송민 건축사 / SM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19 (2층)
- 황인광 건축사 / 미산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24 (1층)

*광양지역 건축사회 신설

- 관할구역 : 전남 광양시
- 사 무 소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86-9, 봉화B/D 3층
- 연 락 처 : 전화)061-726-6877
팩스)061-726-6879

201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2012년 10월 25일, 26일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광주·전남·전북지역 7월 지역 축제 안내

- ▶07. 28 (토) ~ 08. 05 (일)까지 강진청자축제 - 전남 강진군 고려청자도요지 일원
- ▶07. 27 (금) ~ 08. 02 (목)까지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 전남 장흥군 탐진강
- ▶07. 26 (목) ~ 07. 29 (일)까지 목포마당페스티벌 - 전남 목포시 유달예술훈 등
- ▶05. 19 (토) ~ 08. 11 (토)까지 여수 마칭관악페스티벌 - 전남 여수시 여수구항해양공원
- ▶05. 19 (토) ~ 10. 28 (일)까지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 전남 영암군 코리아인테너셔널
- ▶05. 12 (토) ~ 08. 12 (일)까지 광양월드서커스페스티벌 - 전남 광양시 광양항국제여객터미널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심상봉, 윤문곤, 이성엽
편 집 인 서재형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박상윤, 천경훈,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광주 새야구장’

광주시민의 염원 광주 새야구장이
오는 2013년말 완공된다.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시민들의
관심 속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494호 2012-07-02)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1191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주차단위구획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를 확대하고,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범위를 추가하며, 기계식주차장 재검사제도 및 기계식주차장 치 보수업 관련 수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의 주차단위구획 마련(안 제3조제1항)

이륜자동차의 평행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으로 하고,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함.

나. 이륜자동차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 제5호나목 단서신설)

노외주차장에 설치되는 이륜자동차 전용출구의 설치기준,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에서의 차로너비 설치기준 및 곡선차로의 내변반경 설치기준 등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함.

다.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 확대(안 제6조제1항제14호 및 안제11조제4항 신설)

노외주차장에서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의무설치비율을 총 주차단위구획의 20퍼센트 이상에서 3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의무설치비율을 동일한 비율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대형자동차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함

라.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범위 확대(안 제6조제4항제2호의2 신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그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함.

마. 기계식주차장의 재검사제도 정비(안 제16조의8제3항)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사용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제도 및 수수료제도 정비

(안 제16조의12제4항 및 별표)

기계식주차장장치 보수업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업무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기계식주차장장치 보수업의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를 2만원에서 4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916호 2012-06-29)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규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현실화하고,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의 설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룸형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완화(안 제10조제2항)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도로로서 공동주택의 1층인 필로티에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갖춘 도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고 1층인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갖춘 도로 및 개구부가 없는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를 띄우고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 개선(안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지역 설정에 적합하게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 확보기준 개선(안 제35조제2항제2호)

세대당 구성원이 줄어들고 배수지 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지하저수조의 용량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도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지하저수조 용량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82호, 2012-06-29) 대한건축사협회 법령정보 762번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헌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문형록 | 반석기초이앤씨(주) 1,000,000만원
장 철 | 동일교역(주) 1,000,000만원
전라북도건축사회 500,000만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주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꿈꾸다.

심상봉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인생의 아침 프로그램에 따라, 인생의 오후를 살 수는 없겠지만
인생의 중년을 넘어서며 한 조각의 수정처럼 반짝일 수 있는
꿈들을 소망하며 꿈꾸어 본다.

첫 번째 꿈은,
전원 속에 작은 오두막을 짓는 일이다.
건축디자인을 전공하여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한 집을 지었다면
인생의 노년이 이르기 전에 나만을 위한 작은 오두막을 지으리라.

내 생각이 곧 디자인이 되어 내가 담길 집속에서 내 생각을 스케치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두 번째 꿈은,
내가 살아 왔던 흔적들을 정리하여 전시회를 여는 일이다.
틈나는 대로 그렸던 작은 풍경 스케치들과 그동안 작업했던 건축물들의
흔적들을 한데 모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전시회를 열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우리의 삶에는 열고 닫아야 할 문들이 무수히 많을 듯 싶다.
지금울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들을 열고 닫으며 살았을까?
이제 아쉬워서 광하고 닫아버리지 못한 채 지나온 문들을 살포시 열고
이런 저런 이유들로 아쉬움으로 지나쳤던 일들을 정리해봐야겠다.
Bonnie ware는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5가지'라는 글에서
임종직전의 환자들이 후회하는 말들을 이렇게 기록한다.
"내 뜻대로 살걸, 일 좀 덜할 걸, 화 좀 덜 낼걸,
친구들을 챙길걸,
도전하며 살걸" 이라고...



〈2017년 UIA서울유치를 위해 동경을 방문하는 길에...-일본 후지산 스케치/2011년 作〉

달빛이 천장으로 내릴 때

문창식 시인/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공전하는 육신이
뒤척이며 방문을 열다
확
방바닥에 은가루가 쏟아져 내려
화들짝 놀라
달과의 사랑문 열다
한달을 오르내리는 그대 몸이나
백년을 오르내리는 나의 몸이나
숨어있는 비밀
너무 보이진 마세요
난간 테두리
시계바늘 꺾자리 옮겨가고
장담 휘치는 시간 올라와
낮에 잠자고 싶은가요
아무 말없는 사유의 인드라마 틈에서
의식을 하늘에 매달고
곁에 별들도 함께 오시니
시리우스 인가요
줄고 있는 작은별
하늘기운 부풀려 오셨으니
덮어 주세요
차는듯 꿈꾸는 이불로

「음예공간예찬」



밀려드는 서구의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
과 결과를 담담하게 그려나 매우 신랄하게 꾸짖고 있다.
저자 다니자키 준이치로 1886-1965. 도쿄 동경 니혼바시
日本橋 출생. 동경제대 국문과 중퇴. ‘痴人の愛’, ‘芹’, ‘春
琴抄’, ‘세설’ 등, 풍려(豊麗)한 관능미와 음예(陰)있는 고전

작가 다니자키 준이치로 / 출판사 발언

미의 세계를 전개하여 계속 문단의 최고봉을 걸었다.
책은 욕실이나 화장실, 다실, 다다미방, 검은 칠기 등을 비롯
하여 일본 고유의 전통이 깃든 건축 양식에 대한 작가의 애정
이 가득 담겨져 있다. 책이 씌여진 1933년이라는 시대라면 아
마도 서구의 문명이 물밀 듯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시기일 터
이고, 작가는 그러한 문명의 급작스러운 도달에 대하여 조심
스럽게 반기를 들고 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아치’라는 것 속에는 어느정도 불결한
동시에 비위생적인 분자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역지를
쓴다면 서양인은 때를 송두리째 파헤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반하여 동양인은 그것을 소중히 보존하여 그대로 미화한다고
말하는 바이지만 숙명적으로 우리들은 인간의 때나 유연, 풍
우의 더러움이 붙어 있는 것 내지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색
조나 광택을 사랑하고 그러한 건물이나 기물 내에 살고 있으
면 기묘하게 마음이 온화해지고 마음이 안정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되 그로 인해 놓
치게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한 향수가 가득하며, 그 향수를 그쳐

김형균 건축사
다담 건축사사무소

향수로만 다루지 않고 되도록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진
다. 그렇지만 그 논리라는 것에는 풍부한 감수성 또한 짙고
풍부하게 깔려 있으며, 그 아련함의 진면목에 대해서도 놓
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동양의 그것이라는 점에서 우
리가 잃은 많은 것들과도 좋은 비교가 되기도 한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항상 실제 생활에서 발달하는 것으
로 부득이하게 어두운 방에 살게 된 우리의 선조는 어느덧
그늘 속에서 미를 발견하고 마침내는 미의 목적에 따르듯
이 그늘을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일본 다다미방의 미
는 음예의 농담 에 의하여 생겨난 것으로 그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 휘황찬란한 서양의 문물, 그 문물의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었지만 잃었다고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끌어당겼다고 믿도
록 만든, 모든 옛것을 구식으로 만들고야 만 주입된 미적
의식에 대해 작가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우리의 식대로 발
전하였을 수도 있는,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전진해보지 않
은 것들에 대한 아련함이 가득한 수필이다.



캔버스에 유화 2003년 作

이서의 가을

하늘빛 푸르고 별빛 맑은 이서에 단풍까지 곱게 물든 날 그리운 사람이 함께 살고 싶다면
물레방아 집에 아직 그 악속이 쓸쓸히 남아 있을 것 같기에 이서 속으로 길을 떠난다.
떠나는 사람은 나인데 가슴가득 이서가 와 있는 걸 보면 홀로 남아 쓸쓸한 그 악속을 내게
전해주려 필경 가을 내내 이서가 나를 향해 걸어 온 것이 틀림없다.



안개속을 뚫고 나온 두바이의 SKYLINE이 무척 흥미롭다.

자연과의 공존인가.... 아니면 도전인가....?

프리캐스트 판넬을 이용한 지중연속벽 공법 **JTPC WALL**



지하 구조물, 이젠 바뀔때입니다

혁신적 지중 연속벽 공법 - PC WALL

친환경 공법 · 공사기간 단축 · 안전성 우수 · 높은 경제성



고밀도 지반보강 **GEOCON**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공법 **ROTARY PILE**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 기초보강 **MICRO PILE**



중·저층 건물 지반보강 **팡이기초**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



바노바기 역삼동성형외과(낮)



바노바기 역삼동성형외과(밤)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 특징

-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자재
- 자외선에 강한 내구성
- 높은 내한 보온성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원목에 가까운 질감
- 난연재로 화재에 안전

LW PANEL 규격 : 1300 × 3050 × 6T



카이스트 내부 편칭



W호텔 내부 벽체

시공사례사진



용인요양병원



창5동 동사무소



화이트와 블랙 편칭



외국사례

주력제품 : FBD PANEL

◆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FBD PANEL 규격 : 1200 × 2400 × 8T



의류매장 내부 인테리어



내부 천장

시공사례사진



치평동 국민건강보험



역천동 주민센터

외국사례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동일교역(주)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